올 지역공사 발주 작년 수준… 침체 지속

1조4333억원… 2010년 대비 63.8% 그쳐

올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광주·전남 주요 시설공사비는 230여건 1조433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지난해 발주 규모가 전년대비 63.8%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역 건설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광주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예시(豫示)된 올해 공공기관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전체 발주 공사는 14조85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사 발주액은 전체의 9.6% 수준인 1조433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달청이 예시한 1조4050억원보다 2.0%인 283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 발주공사 가운데 신규사업은 101건 727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35억여원보다 29.1%인 1642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1조5644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46.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신규 사업 비중이 낮으면 그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도 줄어 건설경기는 악화될 우려가 높다.

신규 공사 중 가장 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공사규모가 1200억원에 달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화양~적금 1공구(745억6900만원)와 4공구(588억2900만원) 도로건설공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광양(여천)항 항로준설공사(670억원), 광주시도시공사의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603억4600만원), 순천시도시개발사업소의 순천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533억7800만원) 등은 공사규모가 300억원을 웃돌았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 장기 계속공사는 130건 7055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계속공사 중 300억원이상 대형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의 여수엑스포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공사(86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364억3600만원) 등이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3·4차분)과 고막원천 등 지천 살리기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조4333억원 가운데 67.5%인 9686억여원(신규 4576억원, 장기 511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 발주한 시설공사도 나라장터에 예시했다.

자체 발주 시설공사는 광주시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공사를 합쳐 1045억여원 규모였다. 광주교육청은 284억여원대의 공사를 발주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123억여원과 874억여원의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발주 계획은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와 나라장터(g2b.go.kr) 기관별 공지사항 검색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12년도 주요시설 공사집행계획

◇신규공사 (단위:백만원)

공공기관명	발주시기	공사명	공사규모
광주시 도시공사	01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	60,3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2	화양~적금(4공구) 도로건설공사	58,829
	06	〃 (1공구) 〃	74,569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	02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53,378
목포지방해양항만청	04	목포 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48,492
서해어업관리단	07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120,000

◇장기 계속공사

공공기관명	발주시기	공사명	공사규모
전남개발공사	04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86,000
문화체육관광부	0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36,436
광주시	09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3차)	22,830
전라남도	03	나주역~빛가람도시 도로개설공사	23,283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10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21,269.6

◇자체 조달

공공기관명	발주시기	공사명	공사규모
광주시	01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1,2공구)	41,942.9
광주시 도시공사	0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27,675.0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01	함동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토목공사	29,312.0
광주시 남구	06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15,159.0
광주시 도시공사	09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11,000.0

중소기업 "3월도 여전히 어렵다"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기준치 밑돌아

중소기업들이 내다보는 중소기업 업황전망이 2개월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6.7)대비 4.2포인트 상승한 90.9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강,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의 수출증가세 지속과 대외 불안요인 감소, 토목, 건설 등 일부 업종의 계절적 비수기 종료로 인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하지만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여서 중소기업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달 건강도지수는 경공업(84.6→88.1), 중화학공업(88.5→93.4), 소기업(84.2→88.5), 중기업(91.9→95.9), 일반제조업(86.2→90.4), 혁신형제조업(88.1→92.9)등 부문별, 규모별, 유형별 분류에서 모두 상승했다.

내역별로도 생산(86.6→92.0), 내수(84.9→89.1), 수출(88.1→90.9), 경상이익(83.5→85.5), 자금사정(84.4→85.8), 원자재조달(92.9→94.4) 등 모두 상승했다. 생산설비(102.1→100.9)와 재고수준(102.1→102.4)은 여전히 과잉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며 고용수준(95.3→93.7)은 하락해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대미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특별 전담팀 구성 '光 프로젝트' 가동

광주본부세관이 27일부터 '대미 수출업체 특별 전담 지원팀'을 구성, 한·미 FTA 대비를 위한 '光(LIGHT)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8434개, 미국제품 7094개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또 관세인하 혜택을 위한 제품의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업체의 책임으로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제'가 시행된다.

국내세관이 사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원산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세관이 조사를 나서고 FTA 원산지규정위반 등의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대규모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광주세관측은 설명했다.

광주세관은 "광주지역의 전체 수출물량의 25%가 미국이며, FTA 체결국인 아세안, 인도, EU까지 포함할 경우 FTA 체결국가 수출이 53%로 전국 평균(36%)을 크게 웃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세관은 한·미 FTA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미 수출업체 182곳에 실무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 수출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특별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월 항만물동량 1억1182만t … 역대 최고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1억1182만t으로 역대 1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1월에 비해 3.8% 늘어난 것이다. 항만별로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섬유류, 유류 등의 수출입 증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8.7%씩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은 유연탄, 철광석, 섬유류 등의 수출입 물량 감소로 2.1%, 0.3%, 17.7%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유류, 광석, 모래는 각각 8.2%, 5.9%, 22.5% 늘었으나 유연탄, 철재, 자동차는 2.4%, 12.4%, 12.7% 줄었다. 이 기간 수출입화물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국 춘제 연휴로 인한 조업 단축 등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한 103만5천TEU을 기록했다.

환적화물은 벙커C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선사들의 부산항 기항이 확대되며 21.3% 늘어난 69만1000TEU를 처리했다. 연안화물 처리량은 1.7% 감소한 4만7000TEU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신입채용시 기업 89%

스펙보다 인재상

기업 10곳 가운데 9곳꼴로 신입사원 채용 시 스펙(Specification)보다는 인재상을 중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 305곳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재상을 중시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89.2%였다고 27일 밝혔다. 스펙을 더 중시한다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신입사원 선발 시 스펙이 우수해도 원하는 인재상에 맞지않으면 뽑지않느냐는 물음에 '자주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는 답은 각각 20.7%와 59.0%였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화려한 스펙(SPEC)이 아닌 성실성(Sincer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실무능력(Executive ability), 창의성(Creativity)을 가리키는 '스펙(S.P.E.C)'을 갖춘 직장인이었다.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기업들은 성실성·책임감(39.0%), 전문성(30.5%), 실무능력(29.5%), 창의성(29.2%), 글로벌역량(25.2%)을 차례로 꼽았다.

/연합뉴스

서광주세무서, 전입직원 따뜻한 환영식

서광주세무서(서장 신규석)은 27일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세무서로 첫 출근하는 전입직원을 맞이하는 따뜻한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신 서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USB메모리 1개씩을 증정했다.

〈서광주 세무서 제공〉

▼ 코스피지수	1,991.16 (-28.73)
▼ 코스닥지수	538.34 (-5.80)
▼ 금리 (국고채 3년)	3.44% (-0.01)
▲ 원·달러 환율	1,129.1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뉴스 브리핑

아시아나항공 내년 설 항공권 예약 접수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29일 오후 2시 내년 설 연휴(2월 8일~12일) 항공권 예약 접수를 받는다.

국내선 정기편 전 노선(에어부산 공동운항편 제외)이 대상이며, 편도기준 177편(총 공급석 3만1668석)이다.

예약은 아시아나 예약 대표전화(1588-8000)와 홈페이지(www.flyasiana.com), 모바일웹(m.flyasiana.com)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1인당 예약 가능한 항공편 좌석 수는 6석으로 한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협중앙회 내일 광주서 사업설명회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진승현)는 29일 오전 10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츠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11년 사업평가 결과 광주웨슬리신협이 경영대상을 차지했으며, 두암신협·침례회고아주교회신협·광주교원신협이 경영최우수상, 중흥신협·광주어룡신협·무안남부신협·영광굴비골신협·여천신협·입하신협은 경영우수상을 수상한다.